

# ‘위안부 최초 보도’ 前 일본 기자, 5·18 세계에 알린다

(아시아신문)

우에무라 가톨릭대 초빙교수  
기자 지망 한·일 대학생 30명과  
광주·서울 방문 현장교육·토론  
“일본 젊은이들 역사 바로알아야”  
DJ 납치 때 구명 요청 투고도



일본군 위안부를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전 아시아신문 기자가 5·18민주화운동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집권세력의 성향과 이익에 따라 역사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일본에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치른 사실조차 모르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한국에선 최근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가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한·일 젊은이들과 함께 한국민주화에 불을 지핀 5·18을 바로 알기 위해 광주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일본 언론인으로서 최초로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60·전 일본 아시아신문사 기자) 한국 가톨릭대 초빙교수가 한·일 청년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린

올해 주제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다’로 정하고 오는 17~20일 한·일 대학생 30여명과 광주 5·18 사적지, 서울 6월 항쟁 현장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참석하는 젊은이들은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 기자직에 합격해 일사를 앞두고 있는 등 예비 기자들이 참석한다. 한국에선 이화여대와 한국 가톨릭대 학생들이 함께 한다.

지난 5·6일 사전 답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우에무라 교수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와 ‘1987’이 호응을 얻으며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한일 청년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함께 견학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우에무라 교수는 “한국 민주화 과정은 5·18로 촉발돼 6월 항쟁으로 완성됐다”면서 “한·일 젊은이들에게 5·18에 이어 6월 항쟁의 역사적 장소 등도 소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에무라 교수는 “일본정부는 태평양전쟁

쟁이나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한국에서도 5·18 왜곡, 폄훼가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한·일 젊은이들과 함께 5·18 등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에무라 교수가 5·18과 한국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와세다대학에 재학중이던 1973년 김 전 대통령의 납치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신문에 김 전 대통령의 구명을 요청하는 글을 투고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생긴 우에무라 교수는 한국 특파원이 되고 자 아시아신문에 입사했고, 서울로 발령을 받으며 꿈을 이뤘다.

1987년 6월 항쟁 때는 직접 취재현장에 있었고, 1997년 대선 때는 김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1면 톱기사로 작성했다. 우에무라 교수는 1991년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에 대해 최초로 보도한 기자이기도 하다. 그는 첫 보도 후 현재까지 일본 극우 단체로부터 신변을 위협받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지만 진실을 추구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에무라 교수는 “한국에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일 대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진실을 마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대학생들은 오는 17일 광주 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전야제 방문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후 518비행기를 타고 전남대, 금남로 등 5월 항쟁 현장을 둘러본다. 19·20일에는 6월 항쟁의 아픈 역사를 지닌 서울 옛 남영동대공분실과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유해물질 무기산 보관  
김 양식업자 2명 적발

여수해경은 8일 김 양식장에 쓰기 위해 유해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한 김 양식자 A(48)씨와 B(42)씨 등 2명을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차량에 유해물질 표시를 하지 않고, 무기산을 운송한 C(64)씨 등 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고흥군 도화면의 한 야산에 무기산 2만1600 l를 보관했으며, B씨는 고흥군 도양읍 본인 소유 창고에 무기산 400 l를 보관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본인들이 소유한 김 양식장 내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모텔 투숙객 차량에서  
현금 훔친 종업원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7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 투숙객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박모(32)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5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투숙객 윤모(60)씨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혐의다.

해당 모텔 종업원인 박씨는 윤씨가 카운터에 맡긴 차량 열쇠를 이용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는 현금 200만원이 있었다. 박씨는 “전부 훔치면 들릴 것 같아 50만원만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구청 민원실 잦은 이전 질타

○...광주 남구청 민원실이 5년 새 4차례나 이전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남구의회가 주민을 등한시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집행부를 질타.

○...8일 광주시 남구와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청은 2013년 현재 백운동청사로 이전하면서 1층 정문 옆에 민원실을 조성한 후 2015년 1층 후문, 2017년 8층 대회의실, 같은 해 청사 외부 별관 신축건물 등 쪼개는 3개월, 길게는 2년마다 민원실을 옮겼다는 것.

○...오영순 남구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남구청 민원실을 이리저리 밀어 넣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파악하는 자세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300만원 안값는다며...20대 여성 감금·폭행

남부경찰, 2명 구속·6명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8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20대 여성을 모텔에 붙잡아놓고 폭행한 혐의(공포상해·감금)로 A(25)씨 등 20대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여·23)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8명은 광주

시 남구 월산동의 한 모텔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부터 지난 2일 새벽 1시10분께까지 C(여·22)씨를 감금하고 옷걸이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가 300만 원을 빌리고 잠적하자 돈을 갚으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 묘비 닦기 8일 광주시 북구 신규 공직자와 청년간부 40여명이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희생자들의 묘비를 닦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 승리·유인석 사전구속영장 신청

버닝썬 수사 정점 치달아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버닝썬 사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

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왜 짜려봐”...행인·경찰관에 주먹질한 폭력배들

군산경찰, 2명 영장 신청기로

짜려봤다는 이유로 행인 3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질한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일행 B(2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행인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순경과 D경장의 머리와 턱을 때리며 저항했다. 경찰은 순찰차 6대와 인력 10여명을 동원해 이들을 제압,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행인 3명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역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b>기 간</b>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b>시 간</b>	오후 3시 ~ 6시
<b>장 소</b>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b>대 상</b>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b>지 원</b>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b>신 청</b>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b>교육내용</b>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학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